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11 11 2014



##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planted)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창 2:8)

에덴동산은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늘 꿈같은 장소다.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 특별히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설하신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또한 그곳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었다면 오늘날 어느 위치에 해당할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래서인지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자주 받는 질문이다.

에덴동산은 성경에 언급된 곳이므로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성경은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창 2:9-10). 지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성경(NASB)을 넣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Pishon)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Gihon)이라 구스(Cush) 온 땅을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Tigris)이라 앓수르(Assyria)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Euphrates)더라”

위의 지명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다. 이 두 강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서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앓수르인데 이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성을 쌓던 도시 이름에서 등장하며(창 10:11), 셈의 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한다(창 10:22). 또한 구스는 함의 아들의 이름에 등장한다(창 10:6). 나머지 지명들에 대하여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손과 기혼을 갠지스강과 나일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자도 만만치 않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은 위의 이름들 중에 확실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앓수르 등을 통해 에덴동산이 그 근처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로 많은 창세기 주석과 성경공부 교재들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에덴동산의 위치를 찾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홍수심판이 전지구적 홍수가 아니었다거나, 기존 지형을 변형시킬만한 격변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지형 이름만을 통해서 에덴동산의 위치를 지구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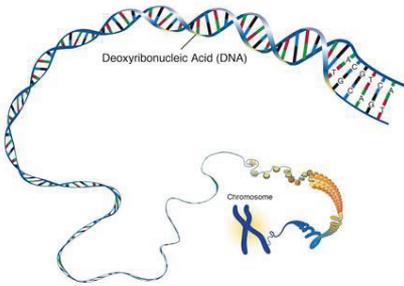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홍수심판은 천하의 높은 산이 물로 덮이고, 모든 깊은  
의 샘들이 터지는,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쉬는 동물 모두 죽이려 하셨던 전지구  
적인 격변적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실 때도 그 홍  
수심판이 “땅을 침몰할(destroy) 홍수”라고 언급하셨다. 그러므로 홍수심판이 성  
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에덴동산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에덴동산을 포  
함해서 홍수 이전의 지표에 있던 것들은 홍수 기간에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홍수심판이 성경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는 고고학자거나  
창조과학자들은 에덴동산을 찾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홍수 전과 후에 일치하는 지명 이름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들 모두  
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홍수 이전을 회상하고 붙였을 것이다. 실제로 오  
늘날에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 새롭게 정착한 곳의 이름을 자  
신들이 살았던 곳과 똑같이 사용하는 예는 너무나 많다. 미국의 많은 도시와 강  
의 이름들이 유럽에서 자신들이 살던 곳과 동일한데 이들 모두는 유럽사람들이  
자신들게 익숙한 지명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필자가 처음 유학하던 미시간에  
Holland라는 도시가 있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민 와서 정착한 곳이다. 이곳  
에 가면 많은 지명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 이름으로 지어졌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명칭들이 영국의 것과 동일하다. 필자가 거주하는 LA의 한인타운을  
보더라도 식당이나 상업용 이름들의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을 그대  
로 사용하고 있다.

전지구적인 심판 이후에 홍수 이전과 그 이후의 이름이 같은 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어쩌면 노아 가족 여덟 명이 홍수 전후를 살았던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격변 전의 지명들을 가져다 쓴 것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홍  
수 이전의 지구환경을 그리워하는 여덟 가족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가.

역으로 보면 노아홍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  
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지구적 홍수 심판이 희미해지  
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그러면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  
냐?”라고 질문할 때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에덴동산 이야  
기는 하나의 설화로 전락해버리고 우리의 시작인 ‘성경적 창조’는 막연해지기 때  
문이다. 이처럼 성경 역사에 대한 바른 믿음은  
성경에 관한 연구일지라도 성경적인지 아닌  
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 C-Value Paradox

C-Value란 각 생물 종(species)에 따라 일정한(constant) 양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생명체의 DNA 양(C-Value)이 간단하게 보이는 생명체의 DNA 양(C-Value)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종종 발견 된다. 예를 들면, 간단한 생물의 대명사인 아메바(Amoeba dubia)는 사람보다 무려 200배 이상 더 많은 DNA 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C-Value Paradox라고 한다. 왜 더 간단하게 보이는 생명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진화론은 C-Value의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 진화론은 생물들이 새로운 유전정보를 획득하여 진화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유전학을 전공한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 유전정보가 증가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W4e4MwogLo>). 한편,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C-Value의 이유에 대해 논리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들은 '종류대로' 창조 되었고 여전히 같은 종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라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한 종류의 생명체는 예나 지금이나 또 내일도 동일한 C-Value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C-Value Paradox에 대해 알아 보자. 왜 간단하게 보이는 생물이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을까?

1970년대 초에 과학자들은 드디어 C-Value Paradox에 대한 이유를 알아 냈다고 생각했다. 전체 유전정보 속에는 표현되는 정보(coding DNA)가 있고 표현되지 않는 정보(non-coding DNA)가 있는데 후자의 DNA 양이 많으면 생물체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더 많은 DNA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체 유전정보와 표현되는 정보(coding

DNA)인 유전자(gene)의 수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의 전체 DNA 중에서 표현되는 유전정보는 약 2%에 불과하다. 사람의 경우 거의 모든 유전정보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메바 유전정보는 어느 정도나 표현이 되는 것일까? 유전자 가 몇 개나 될까? 아직 과학자들은 여기까지 연구할 여유가 없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C-Value Paradox 대신 C-Value Enigma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역설(Paradox)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수수께끼(Enigma)는 과학이 발달하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되지 않는 DNA가 얼마나 되며, 어디서 와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그 DNA의 역할은 무엇일지, 왜 그 만큼의 표현되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다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설’ 대신 ‘수수께끼’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모른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과학자들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junk DNA란 용어를 떠올리게 된다. 표현되지 않는 DNA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부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 DNA를 필요 없는 junk(쓰레기) DNA라고 불렀다. 진화 과정 중에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맹장이나 꼬리뼈를 흔적기관이라고 했던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흔적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잘 모르는 기관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과학자들은 더 이상 junk DN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 많은 유전적인 질병들이 이 표현되지 않는 junk DNA 이상으로 생겨 난다. 그 표현되지 않는 정보들은 다른 유전자들을 조절하거나 DNA정보 자체를 보관하는 데도 사용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종류대로 창조 된 생물체들에서 보여지는 C-Value Paradox에는 창조자의 놀라운 지혜와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수가 들어 있는 것이다.

왜 표현되지 않는 유전정보들이 그렇게 많은가? 표현되는 유전자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전정보를 작은 공간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두기 위해서 등 과학자들은 많은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표현되고 있는 2%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류가 그 질문에 답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교만이다. 더 놀라운 기능이 거기에서 발견 될지도 모른다. 과학은 결코 모든 것을 알아 낼 수 없다. 창조물들 속에는 이중 삼중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더 간단하게 보이는 생명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상 아직도 역설이다.

훗날 과학자들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창조자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7).





## 창조과학탐사

### 안산동산교회

지난 9월 4-10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참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실을 확인하는 감격뿐 아니라 우회하는 버스 안에서 나누었던 간증들은 그 창조자께서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지난 1월에 이재만 선교사가 나흘간 신년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 이랑학교(9/20-26)

전북 진안에 위치한 이랑학교(교장 정병갑목사)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두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이 세 번째로 8학년, 10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랑학교는 학교를 거쳐가는 전교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창 진화론을 배워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진화론이 어떻게 틀렸고, 성경의 증거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와 같이 창조과학을 성경 전수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나성순복음교회

### 아프리카 선교사(9/29-10/1)

지난 9월 29일-10월 1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선교사님께서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많은 질문도 주셨습니다. 또한 각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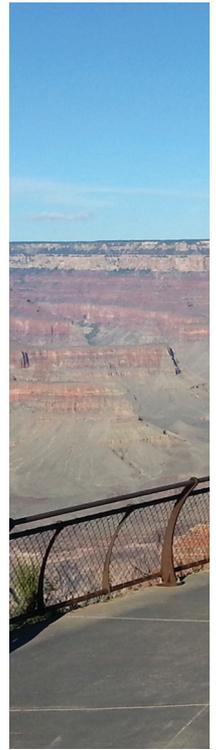
교사와 앞으로의 자라나는 세대에 창조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확인하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매년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창조과학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남미, 아시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창조과학세미나

### 시애틀 형제교회 세미나

지난 9월 12-14일 이재만 선교사는 시애틀 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

이랑학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세미나 신청자뿐 아니라 교사 수련회, youth 예배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 주님의 영광교회 집중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2014년 3분기 정기 세미나가 9월 2일-28일까지 매 주일 1:00에 열렸습니다. 주님의영광교회는 새신자반 창조과학 강의에 이어 지난 4년간 매 년 3 분기에 나누어 년 12회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포맷으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집중세미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

지난 9월 13일과 20일 양일간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매 번 50명 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매 년 열렸던 창조과학학교 대신 집중 세미나로 진행 되기는 올 해가 세 번째입니다. 매년 참석하는 창조



과학 탐사를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집중 강의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시카고 지역 창조과학학교

제 16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주 동안 시카고 그레이스교회(담임목사: 원중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9명이 등록하여 지난 9월 8일 시작으로 오늘까지 5회 강의를 마쳤습니다. 10월 13-14일은 이재만 선교사의 지구나이와 동성애 특강으로 이뤄집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동용 박사(630-400-6114)

### 제 6기 ITCM 훈련생 모집

제 6기 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에 참여할 귀한 청년/대학생 훈련생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4일까지 8주간 진행 될 제 6기 ITCM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고해진 다음 세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추천및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과학선교회 웹사이트 "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



## 빌 나이(Bill Nye)는 진화를

공통 핵심 (Common Core)을 반대한다구요? 당신은 아마도 어떤 미친 창조론자겠군요. 라고 빌 나이는 이야기합니다.

공통 핵심 국가 표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관한 논쟁은 뜨겁게 지속되고 있으며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공통 핵심 과학 표준 (Common Core Science Standards)”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차세대 과학 표준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에 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빌 나이는 과학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통 핵심 표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reason.com 의 저널리스트인 로비 소아브에 따르면, 나이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 거의 단정적으로 - 반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빌 나이:공통핵심표준이 창조론자 교사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온라인 비디오(BigThink)에서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단지 진화를 부인하는 위장된 사람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제가 숲속의 왕이었다면, 우리는 핵심 교육과정에 수학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과학 역시 공통 핵심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핵심 교육과정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이들에게 표준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과학에 관해 알고 있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물학 대신 창조론을 가르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파벳을 배워야 합니다…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사

모든 사람들은 영어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대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화를 포함한 약간의 생물학을 배워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회를 만들기 위한다면, 알파벳은 문자의 임의적인 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제게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물리학, 화학, 수학, 그리고 약간의 진화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약간의 생물학을 배워야만 합니다.

## 알파벳과 동일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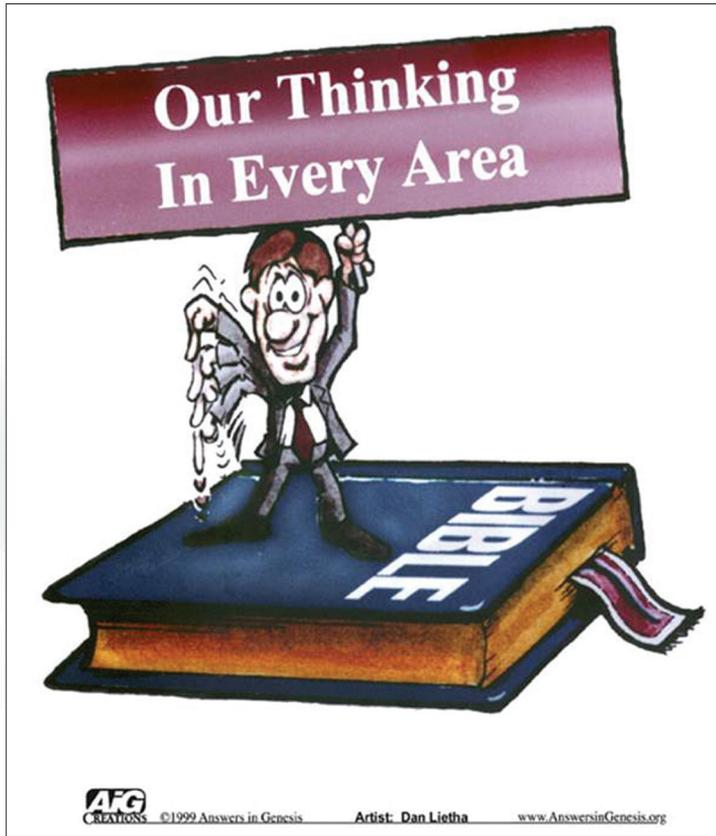
이러한 생각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알파벳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어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대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화를 포함한 약간의 생물학을 배워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통 핵심 표준에 큰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영어와 수학에만 적용되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각 주들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진화를 가르치는 것을 강요하거나 창조과학을 언급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Answers in Genesis 에서는 이 논쟁에서 한쪽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빌 나이가 공통 핵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벽장 안의 창조론자들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역설적인 것입니다.

공통핵심 국가 표준 (CCSS)이 대개 창조론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나이의 제안은 어리숙한 것입니다.

공통핵심 표준은 많은 경우 - 우리가 확실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 차세대 과학표준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표준들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협회와 주정부들은 이 두개를 용



합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 자료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진화론의 이념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 차세대 과학 표준은 그것이 어떻게 공통핵심 표준과 완전히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핵심표준과 과학표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에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공통핵심표준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다양한 좋은 이유들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공통핵심표준이 대부분 창조론 주제라는 나이의 제안은 어리숙한 것입니다.

진화를 믿도록 교육되는 것이 수학과 문학, 그리고 알파벳을 배우는 것과 동등하다는 나이의 견해는 동일하게 어리숙합니다. 사실, 나이는 “진화”와 생물학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나이는 관찰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은 살아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것은 관찰을 위하여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실험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창조과학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지만, 그들은 학생

들에게 - 진화와 같은 - 논란이 있는 주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적 자유를 갖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실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 어떤 생물학적 사실도 성경적 창조과학자들의 믿음과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의 글들, “성경에 근거한 예측이 과학적 발견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창조 모델은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진화와 의학”에서 논의했듯이 성경적 세계관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는 예측들을 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며, 위험하고 다양한 틀린 결론을 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진화론적 주장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자연 법칙들이 과거 한 때에는 다르게 작동했고, 이로 인해 무생물로부터 자연 법칙을 통해 생명 생겼고, 정보의 획득으로 인해 새롭고 보다 복잡한 생명체들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화를 믿도록 가르치고, 나이의 주장처럼 창조가 “우리가 과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불일치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 과학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단지 진화론자들이 관찰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과거에 관해 믿기로 결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Dr. Elizabeth Mitchell, Answers in Genesis  
번역: 이충현 D.M.D.

## AFTER EDEN

by Dan Lietha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런 표현을 한  
처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가 거기에  
꼭 있었어야만  
했는데.”

# 창조과학 탐사

8/4-8/8, 2013

## 간증

나는 먼저 한마디를 하겠다. “이제만 선교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저의 머릿속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 성경이 이 세상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진화론에 반대할 것이다. 정말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 이종훈 <목동 지구촌 교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 여용원 <목동 지구촌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이 사실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 김영미 <신촌 장로교회>

무작정 믿기만 하였다. 하지만 ... 하나님의 창조 때 땅과 심판하셨을 때의 땅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 정유나 <목동 지구촌 교회>

교회, 성경의 정확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좋을 여행이었다. - 이주현 <목동 지구촌 교회>

내가 직접 역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임을 세상 속에서 더 확정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 김준석 <목동 지구촌 교회>

원래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변 사회에 휩쓸려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성경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 성경이 진실인 것, 진짜 역사인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 김태진 <목동 지구촌 교회>

전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 진화론이 아닌 성경이 역사고 증인인 창조론을 믿게 되었다. 이번 비전 트립은 내게 성경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아빠도 여기에 오면 믿을 것 같아 다음에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 김동환 <목동 지구촌 교회>

나는 생물학과 지질학 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종의 기원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교과서를 보며 공부했다. 어렸을 때 빨리 깨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되면 잘못된 진화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창조과학자”가 되고 싶다. - 정현호 <목동 지구촌 교회>

진화론을 믿었던 나였기에 ...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충격이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반성도 했다. ...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의심할 틈도 없이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죄송함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변화를 주신 이제만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천치윤 <목동 지구촌 교회>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속 이야기로 설교도 그저 한 편의 이야기를 듣듯이 생각



했었는데 그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만 해도 원래 배우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믿기가 힘들었는데 둘째 날이 되어 그랜드 캐니언을 보게 되자 점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전도하고 싶습니다. - 박보경(B) <목동 지구촌 교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수 많은 증거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충격이 사라질 즈음,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 같다. - 박희서 <목동 지구촌 교회>

'창조과학'이라는 생소한 단어로 시작된 비전트립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 최영현 <목동 지구촌 교회>

반쯤은 관광객이라는 마음으로 왔다. 하지만 ... 신화 비슷하게 믿었던 성경이 사실 진짜이고 교과서는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나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창조과학이 진실이라고 알려주고 싶다. - 김희호 <목동 지구촌 교회>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을 보는 내내 남들이 보는 그냥 멋진 광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지며 울컥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주셨습니다.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진경성

학교에서 진화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성경과 하나님이 의심 되었다. 그러나 이번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진화론은 어리석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 고희배 <목동 지구촌 교회>

성경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창조과학투어를 통해 창조의 증거를 보고나니 전보다 훨씬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성경에 거짓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 박보경(A) <목동 지구촌 교회>

믿고는 있었지만 학교에서 진화론을 계속 배우다 보니 창조론이 그냥 신화처럼 여겨지기도 하였고 창조 후에 진화가 이루어 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곳 창조과학투어에서 이제만 선교사님의 명 강의를 듣고서 내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그냥 100% 허구라는 것과 창조론에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김혜리 <목동 지구촌 교회>

This has been a learning experience for me and has left a deep impression of what creation ministry should look like. I feel reinvigorated 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the great truth he has given us through his world and through his creation. Thank you Jaeman! - Bill Hoesch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0/31-12/2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12/2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CA

12/4-10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NJ

12/11-14 밴쿠버 교회협의회 (이재만), Canada

12/15-23 미주 동부 순회 세미나 (이재만)

12/22-2/14 제 6기 ITCM

12/29-31 베다니 장로교회 (EM, 김선옥), GA

2015년

1/5-7 창조과학탐사 (사이판복음교회), 이재만

2/2-11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6-19 창조과학탐사 (행복한원교회), 이재만

2/28-3/1 산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A

3/2-5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3/30-4/1 창조과학탐사 (멕시코 하나감리교회), 최우성

4/7-10 창조과학탐사 (R&R), 이재만

4/20-26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